

方伯 趙榮國銘

通判 李德顯書

榮廷庫直 吳莫立

이라 하였다.

3、無染大士碑

浮屠田에 無染國師의 碑가 있다. 前面에는 「師無染大士之□」、後面에 「次丁亥六月日立」의 銘文이 있다. 僧侶口傳에 의하면 無染國師가 東臺에 居하고 弟子九鼎祖師는 西臺에 있었다는 것이다. 九鼎祖師의 俗名은 詢父라 하며 麻布商을 하는데 江陵에서 오다가 大關嶺에서 無染國師를 만나서 饒飢를 請하나 無染國師가 말없이 한동안 直立不動한 후에 말하기를 吾身에 數 많은 衆生(飢)을 요기시키기 爲해서 서 있었다는 것이다.

悟道頌(九鼎祖師詩)

塵塵利利法王身 草鞋豈非天真佛

方知自性元清淨 山間大地是空義

(以上 東台 寬懷스님 談)

4、月精寺重建事蹟碑片

月精寺事務室 옆 倉庫앞에 大理石製 碑片이 있다. 이 碑片은 全碑의 左側部에 該當한 것으로 文字가 남은 것은 右에서 一行 一字「能」、二行에 「文者」、三行에 「參知李彙普述」(字徑 二·八 cm)이 있을 뿐이며 碑厚 一四 cm 碑左側 長 四四 cm 上殘部 六 cm 下殘部 一五 cm인데 이 碑片은 朝鮮金石總覽下 月精寺重建事蹟碑인 것을 알겠다. 日政時代 月精寺에 있던 民間人 文某가 故意로 破壞하였다는 것을 現事務員 朴某에게서 들었다.

高靈良田洞岩畫調査略報

— 石器와 岩畫遺蹟을 中心으로 —

李 殷 昌

一、序 說

二、遺蹟概況

1、石器遺蹟

2、岩畫遺蹟

三、良田洞 先史文化의 性格

四、餘 說

一、序 說

慶尙北道 高靈郡 開津面 良田洞의 石器遺蹟과 岩畫遺蹟을 調査한 바 있다. 一九七一年 一月에 良田洞에 居住하고 있는 曹龍贊(六〇歲) 農業氏가 嶺南大學校 博物館에 直接 찾아 와서 良田洞 遺蹟狀況을 말하고 한번 이곳 調査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그리하여 二月初에 筆者는 曹龍贊氏의 인도를 받아 現地를 豫備調査하였다. 이때 意外로 良田洞 石器遺蹟에서 많은 土器片과 石器를 採集하여 이곳 石器文化樣相을 大略 밝힐 수 있었고 한편 良田洞 앞터(卵岬)部落 岩面에서 高古한 岩畫를 發見함에 이르러 크게 놀랐고 한편으로는 크게 感嘆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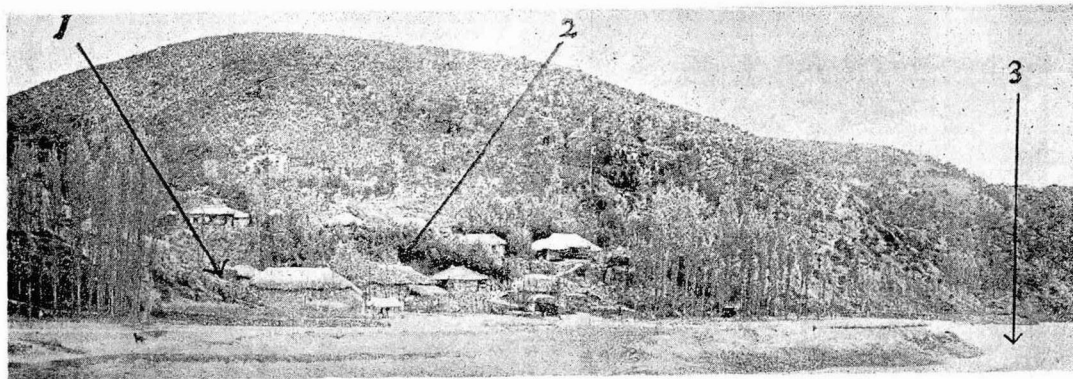


圖 1. 岩畫가 있는 알터 (卵峴) 部落과 그 附近
1...岩畫 2...알터 部落 3...會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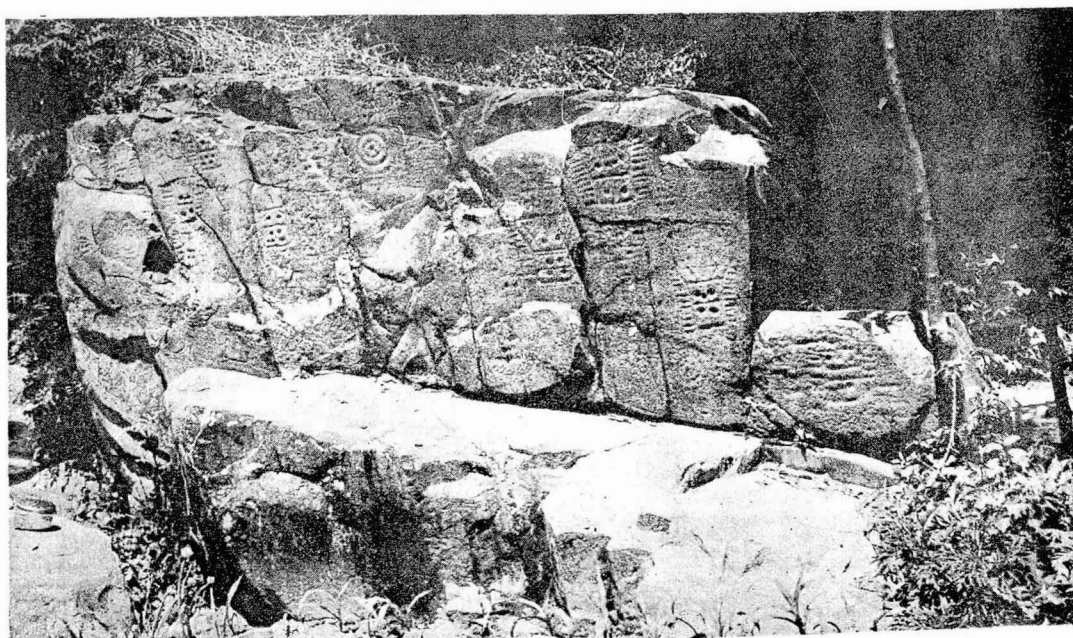


圖 2. 岩畫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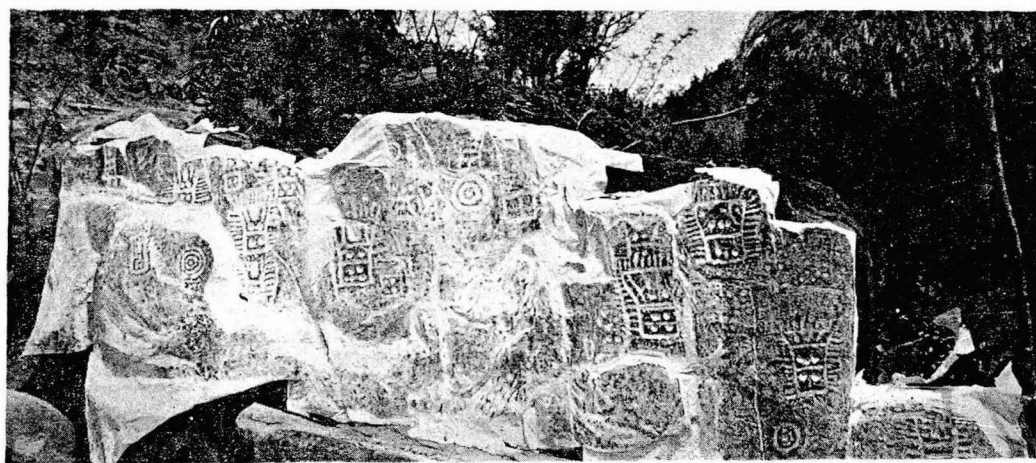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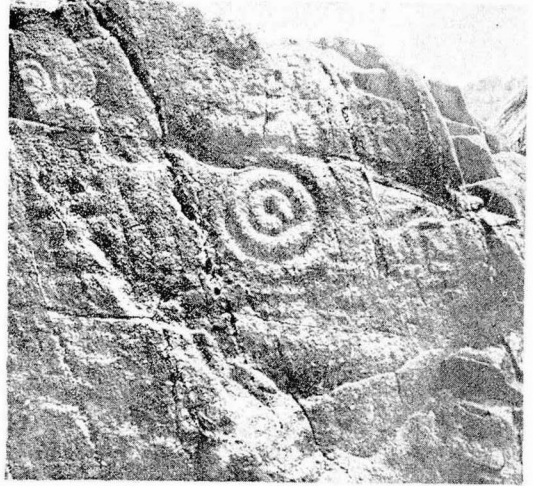


圖 3. 岩畫 拓影



中央部の 小群(∟표가 同心圓)



上位의 同心圓과 十字形

岩畫上位에 同心圓
과 十字形을 놓고
이를 中心으로 岩面
全體에 刻畫가 配置
되었는바 各各 同心
圓을 中心으로 中央
部・向左部・向右侧
部의 小群을 形成하
고 있다.



向左部の 小群(∟표가 同心圓)



向右侧部の 小群(∟표가 同心圓)

圖 4. 岩畫의 小群形成狀況

그리고 봄이 되기를 기다려 四月下旬에 沈載完館長을 團長으로 한 嶺南大學校博物館調查團이 現地에 이르러 本格的인 調査를 實施하였다. (四月二十三日부터 四月二十九日까지)

이 調査에서 이곳 良田洞 丘陵의 石器文化 樣相과 同 卵峴(卵峴)部落의 岩畫 內容을 대략 把握할 수 있었고 岩畫에 對한 앞으로의 研究를 推進함에 있어서 그 基礎資料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蔚州川前里書石」의 岩畫가 發見되어 學界의 關心을 모으고 그 問題解決에 盡力하여 오던 차에 이보다 더 高古한 高靈 良田洞 卵峴部落의 岩畫가 發見되었음은 더욱 意義가 깊다.

高靈岩畫에 對하여 筆者는 嶺南大學新聞에 簡略한 報告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詳細한 學術調查報告를 내기로 計劃하고 現今 그 準備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지금까지 調査 整理된 事項을 여기에 略報 하고자 하는 바 이것이 學界의 도움이 된다면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二、遺蹟概況

大邱市에서 高靈으로 가는 道路를 따라 가면 高靈邑을 約 2km 쯤 남서쪽으로 金山재(錦山嶺)에 다다르게 된다. 이 錦山嶺에서 南走하는 丘陵이 있으니 이곳은 高靈邑에서는 望山에 該當하여「望山」이라 名稱하고 良田洞에서는 뒷山으로서「赤林山」이라 稱號한다. 南走하여 起伏하는 이 丘陵의 山上이 石器遺蹟地(石器·土器 散布地)로 되어 있다. 그리고 石器가 散布되어 있는 이곳 丘陵의 東麓 低地는 支石墓가 分布되었으며 이 丘陵의 南端이고 河川 北岸인 卵峴(卵峴)部落의 岩面에 岩畫가 彫刻되어 있다.

1、石器遺蹟

丘陵은 北으로(錦山嶺쪽) 높은 高峰이 가로막고 南으로 若干 丘陵의 龜背形을 이루다가 다시 南에 高峰이 起立하고 이 高峰에서 또 南走하는 殘脈이 傾斜를 이루고 江岸에 臨한다. 石器와 土器는 이렇게 起伏하는 丘陵을 따라 散布되고 있다. 이 石器遺蹟에 對하여는 앞서 尹容鎮 教授에 依하여 調査報告된 바 있고 筆者도 그 調査한 一部를 發表한 바

있다. 現今도 이 遺蹟地에서 土器片과 石器가 出土되는 바 豫備調査와 本調査의 前後 二次에 걸친 調査로 많은 土器片과 石器類를 採集할 수 있었고 簡單한 一部試掘로 遺蹟地의 狀況을 알 수 있었다.

(1) 土器類(圖 5—18)

土器類는 모두 器壁이 두껍고 石英粒이 含有된 素燒質인 赤褐色의 典型的인 無文土器가 支配의 이고 그를 忠心으로 하고 있다. 完形品을 發見하지 못하고 겨우 多數의 破片만을 採集하였을 뿐이므로 이곳 土器의 器形을 把握하기 어렵다. 다만 破片을 通하여 土器의 形態를 大略 推定할 수 있다. 첫째로 平底土器로 되었는데 ① 底面이 平平한 平底形이 大部分이고(圖 5, 9), ② 낮은 臺에 底部가 若干 들어간 底臺形이 있으며(圖 6, 10), ③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높은 臺위에 器身이 놓인 高坏形(圖 7, 8, 11, 12)을 볼 수 있다. 둘째로 口緣部의 處理는 大部分 外反하고 付帶形式인 바 그 付帶形式은 ① 斷面圓形付帶의 것(圖 13의 ①, 16의 1), ② 斷面方形付帶의 것(圖 13의 ②, 16의 2) ③ 斷面三角形付帶의 것(圖 13의 ③④⑤⑥, 16의 3, 4, 5, 6) 등으로 區分된다. 셋째로 器形은 土器의 基部和 器壁의 彎曲度로 보아 ① 壺形土器 ② 盃形土器 ③ 高坏形土器 등을 確認할 수 있다. 그리고 넷째로 土器의 把手는 大體로 牛角形 把手(圖 15, 18)인 즉 把手가 짧고 굵으며 先端이 若干 위로 向한 것이 많고 또 그 接着은 把手의 基部(凸部)를 器壁孔에 맞추어 홈으로 발라 붙이게 하였는 바 把手部의 器壁이 두껍다.

이 良田洞의 赤褐色 無文土器는 可樂里 住居遺蹟·美松里遺蹟 上文化層^⑥ 등의 出土 無文土器와는 그 形態와 技法에 있어서 서로 若干 異なる 點이 있지만 金屬初期 農耕文化 無文土器라 는 체계 그 系統을 두어 아할 것이다. 그리고 江西 細竹里遺蹟에서 十字形劍把頭飾과 같이 出土된 赤褐色 無文土器의 平底樣式·牛角形把手·高坏形土器 등과 良田洞의 것이 같으며 또 가까운 地域인 琴湖江流域의 遺蹟에서 劍把頭飾·磨製半月形石刀·磨製石鏃·磨製石斧 등과 같이 出土된 無文土器의 燒成과 形態 등도 良田洞 出土無文土器의 그것과 같으며 特別 平底의 構造·口緣部의 處理·牛角形把手의 接着·高坏形土器 등은 良田洞의 것과 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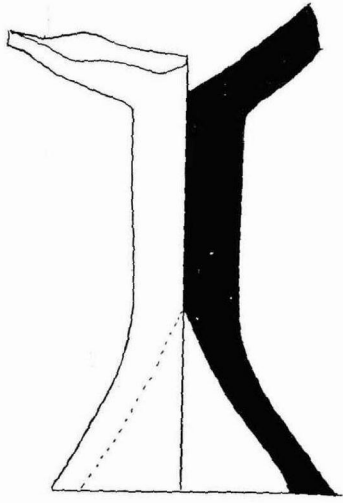


圖 7. 高杯形土器(其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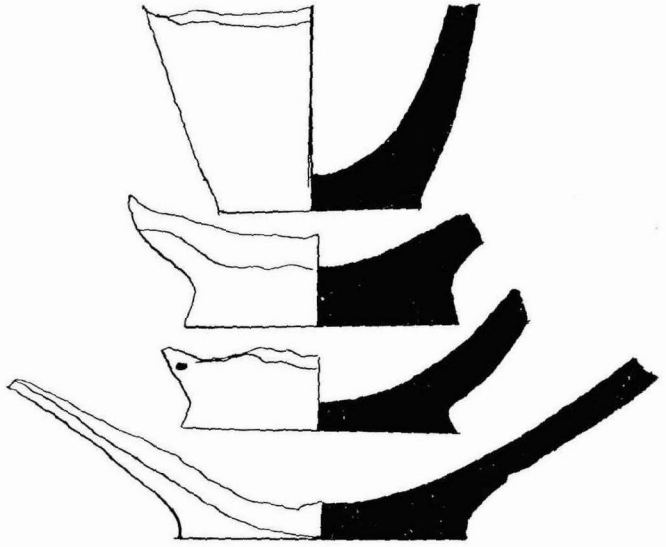


圖 5. 平底形無文土器



圖 8. 高杯形土器(其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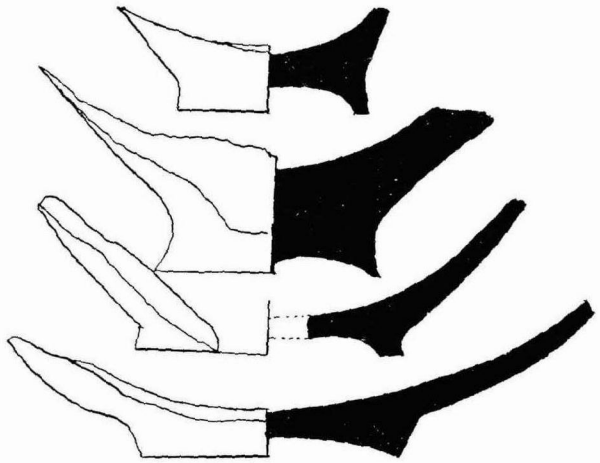


圖 6. 底臺形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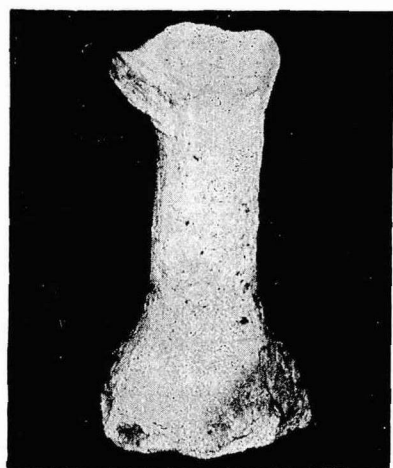


圖 11. 高坏形土器(其 1)



圖 9. 平底形無文土器



圖 12. 高坏形土器(其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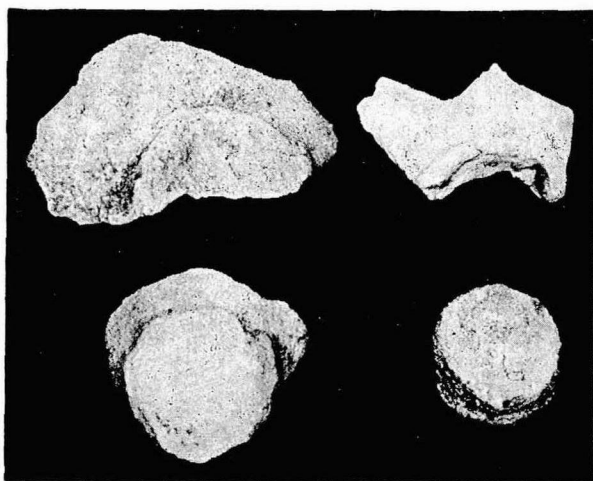


圖 10. 底臺形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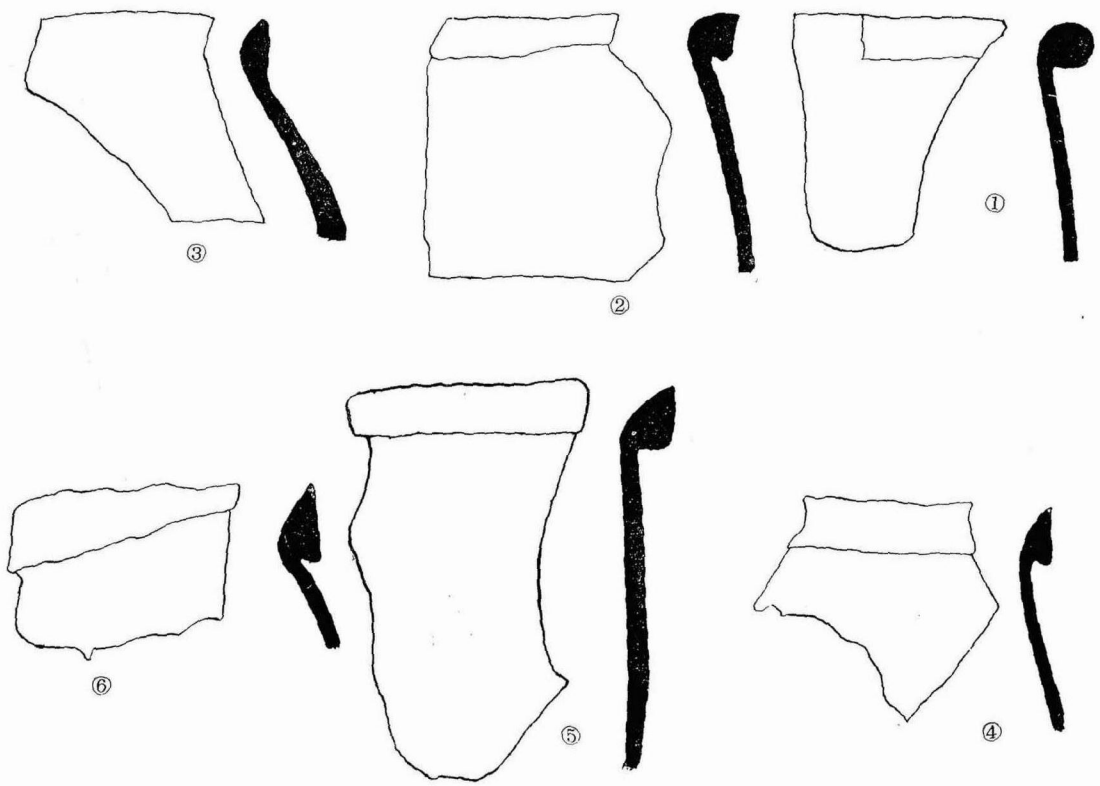


圖 13. 無文土器의 口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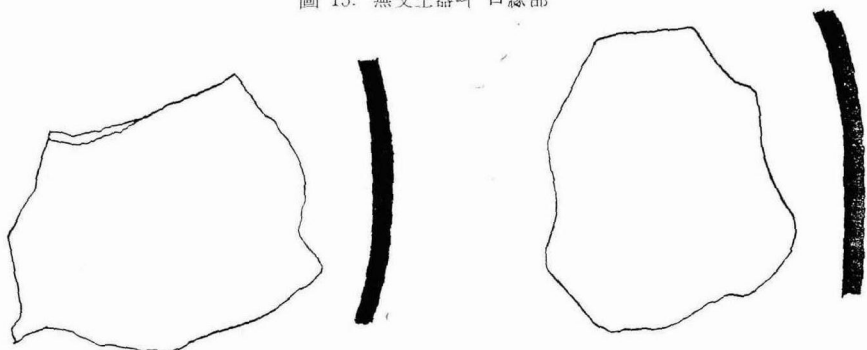


圖 14. 無文土器의 器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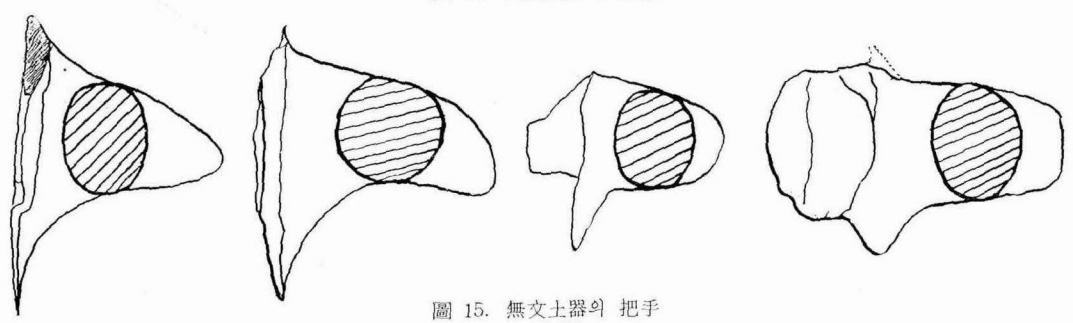


圖 15. 無文土器의 把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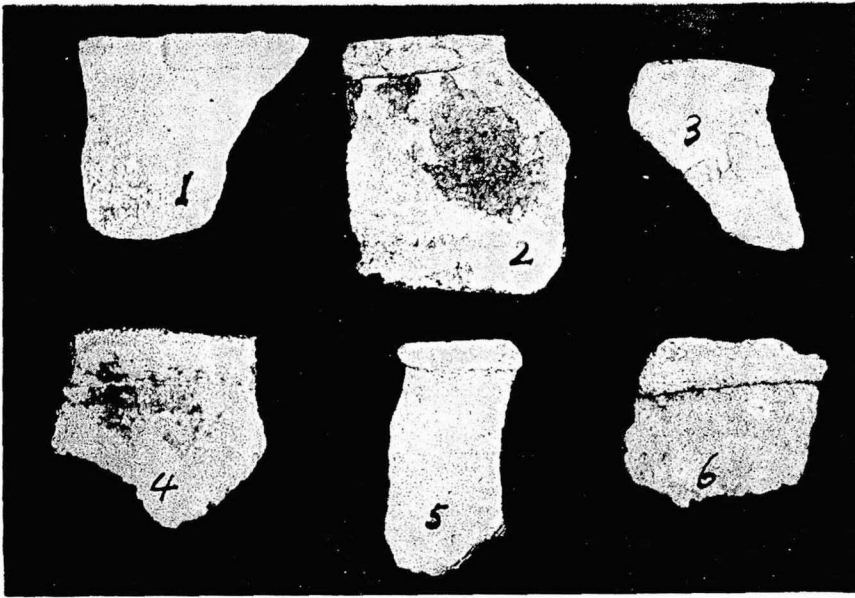


圖 16. 無文土器의 口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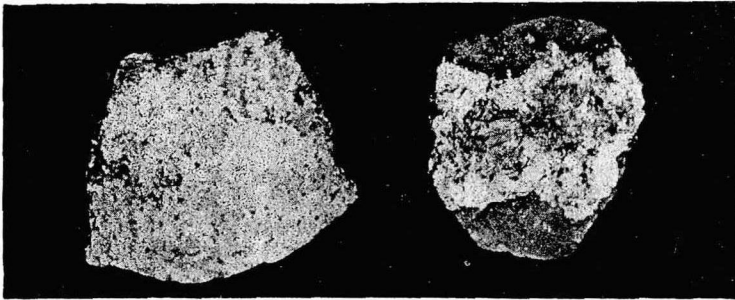


圖 17. 無文土器의 器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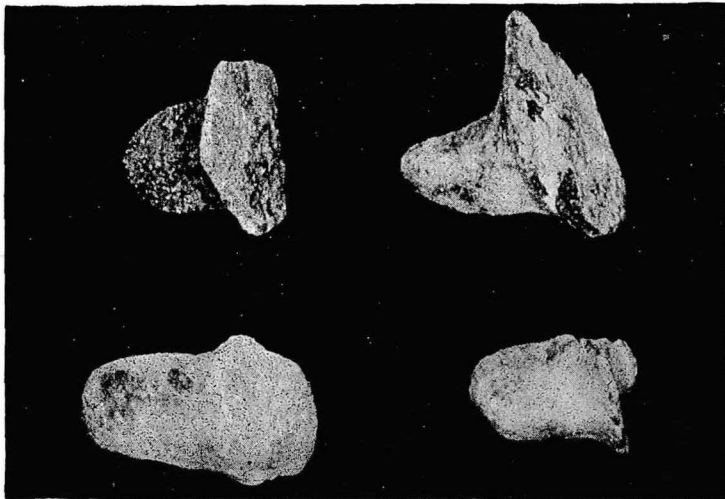


圖 18. 無文土器의 把手

似하다. 그리하여 여기 良田洞 出土 土器는 新石器時代의 農耕社會의 無文土器를 繼承한 金屬初期 農耕文化의 典型的인 無文土器 樣式으로 推定되며 그것은 日本의 彌生式土器에 連結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石器類(圖 19-23)

石器類의 出土도 百餘點에 達한다. 土器類와는 달리 完全品이 많이 出土되고 있어서 往時의 石器樣相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 石器는 그 製作上으로 보아 自然石器·打製石器·磨製石器로 區分되고 그 種類로는 石斧·異形石器 砥石 등이 있으며 그 類型도 多樣하다. 그리고 形態上으로나 또는 用途上으로나 特殊한 樣相을 보이고 있어서 興味를 끌고 있다.

A. 石斧: 石器 中에서 絶對多數를 차지한 것이 石斧이니 이들 石斧는 自然石石斧·打製長方形扁平石斧·磨製蛤刃石斧·磨製有肩石斧 등이 있다.

① 自然石石斧(圖 19의 ①·20의 1)

良田洞 石器 中에는 自然石을 그대로 利用한 石器가 있다. 그 中 自然石石斧는 長 一·二·五cm 幅 三·五cm 厚 三cm의 川石을 擇하였으니 水磨된 川石인 바 대체로 四角柱形으로 된 下先端을 字形으로 잘라 兩刃石斧를 形成하였다. 곧 造成하고자 하는 石器에 適合한 形態로 된 自然石을 選擇하여 그 돌의 一部分을 變形시켜 用途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이다.

② 長方形扁平石斧

長方形扁平石斧는 考古美術 第七卷 第一號에 앞서 調查報告된 바 있다. 이는 大體로 直축한 石斧인 바 斷面은 長方形을 모죽인 모습이고 斧身은 윗쪽으로 若干 줄아 들고 아래 刃部쪽으로는 若干 넓어지는 모습으로 되었다. 全面 細打하여 表面을 다듬고 刃部는 크게 打切하여 나타난 部分을 利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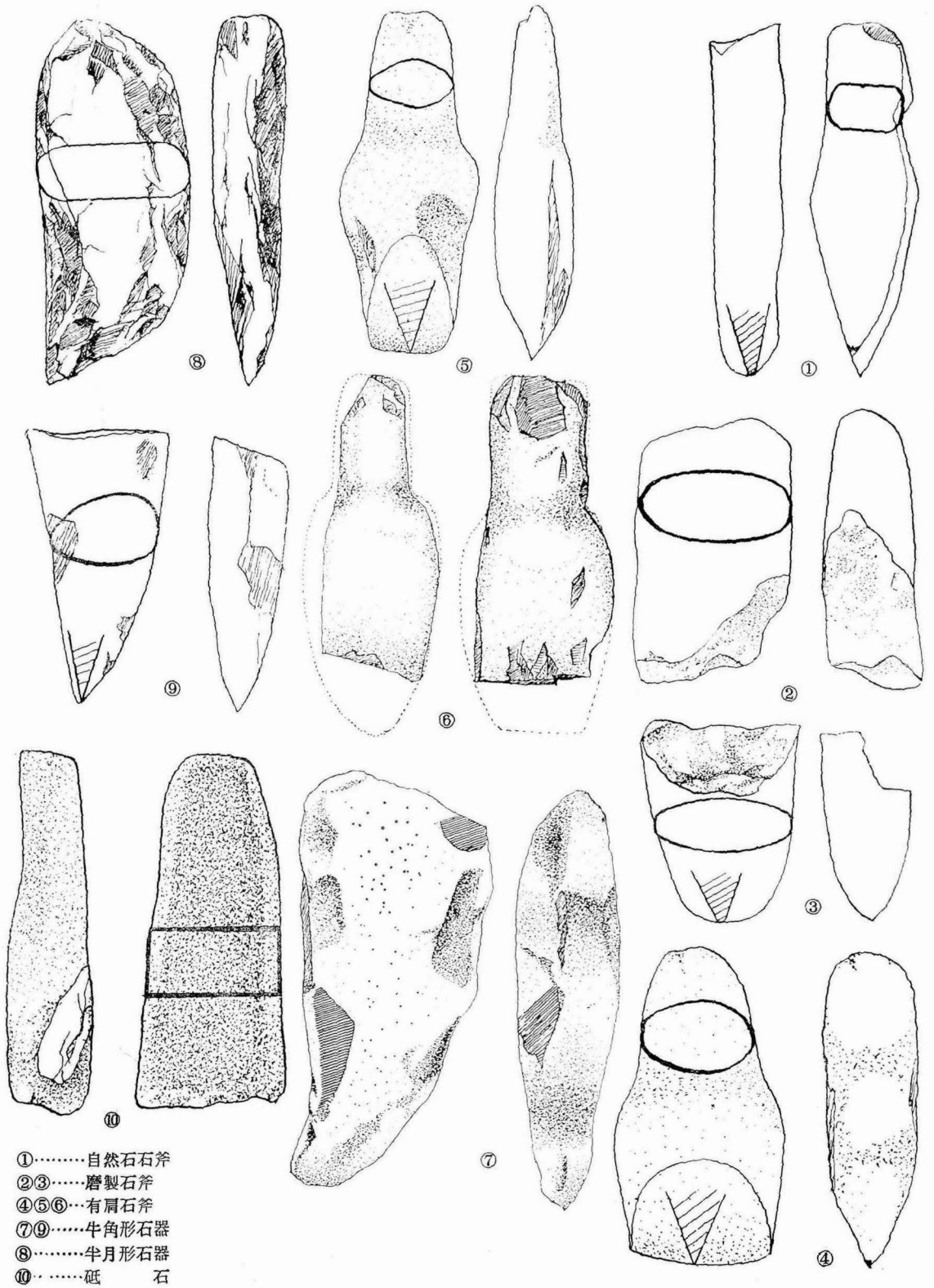
이곳 牛角形石器 또는 長方形扁平石斧 등이 모두 打切部를 刃部로 利用하였으니 곧 打製石器의 刃部形成 習俗이 남아 있음에 注意하여야 하겠다.

③ 磨製蛤刃石斧(圖 19의 ②③·20의 ②③)

磨製蛤刃石斧는 良質石材를 精磨하여 造成한 것인 바 破片뿐으로 二個가 있다. 「其一」은 斧身 上半部만이 남아 있는 것인 바 現存長 二·一cm 頭部幅 六·三cm 厚 四·八cm 로서 全面을 곱게 研磨하였다. 斧身 下半部가 缺失되어 未詳하나 蛤合石斧로 推定된다. 「其二」는 斧身 下半部만이 남아 있어 現存長 八·五cm 最大幅 五·七cm 厚 四·三cm 로서 亦是 곱게 研磨한 것이다. 斧身 上半部는 缺失로 未詳하나 이는 蛤形兩刃이 完存하여 典型的인 蛤形石斧임을 알 수 있다. 이들 磨製蛤刃石斧 「其一」과 「其二」로 이곳 蛤刃石斧의 全體의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으니 곧 그 形態上의 特徵으로는 斧身 斷面이 精圓形을 하였고 斧身의 全面을 精磨하였으며 刃部가 蛤形兩刃으로 光澤이 나도록 研磨하였다. 이들 石斧의 源流는 中國 仰韶 農耕文化에 두어야 할 것으로 그 影響을 받아 우리나라 全國各地에 分布되고 있어 農耕文化遺蹟의 石斧로 出土되며 日本의 彌生式 文化期의 遺蹟地 또는 具塚 等地에서도 이들 磨製蛤刃石斧가 出土되고 있어서 農耕社會의 農工具로서 使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有肩石斧(圖 19의 ④⑤⑥·21)

良田洞 出土 石斧 中에서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全長 一·四cm 정도 頭部幅 四cm 정도 肩部幅 六cm 정도 刃部幅 五cm 정도로 모두 磨製다. 그 構造는 石斧의 中間位에서 턱(段)이 저서 肩部를 形成하여 곧 上半部는 홀쭉하고 下半部는 굽어지는 것이다. 良田洞 出土 有肩石斧는 그 肩部의 構造가 東山遺蹟 出土 有肩石斧와 臺北市 圓山遺蹟 出土 有肩石斧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字形」으로 角진 肩部形成이 아니라 曲線으로 肩部를 造成하였으니 慶州 附近 出土 有段石斧·珍島 出土 有段石斧·瑞山 出土 有段石斧 等 곧 우리나라 西海岸·南海岸地帶에 分布된 有段石斧의 段部가 顯著하게 두드러진 構造로 肩部가 發達하였다. 良田洞 出土 有肩石斧도 前述 有段石斧와 그 用途 目的의 意義를 같이 한 것으로 琴湖江 流域 出土 有肩石斧 類例와 形態를 같이 하는 것이다.



- ①.....自然石斧
- ②③.....磨製石斧
- ④⑤⑥.....有肩石斧
- ⑦⑨.....牛角形石器
- ⑧.....半月形石器
- ⑩.....砭石

圖 19. 各種石器之實測圖



圖 20. 石 斧 1…自然石斧 2,3…磨製石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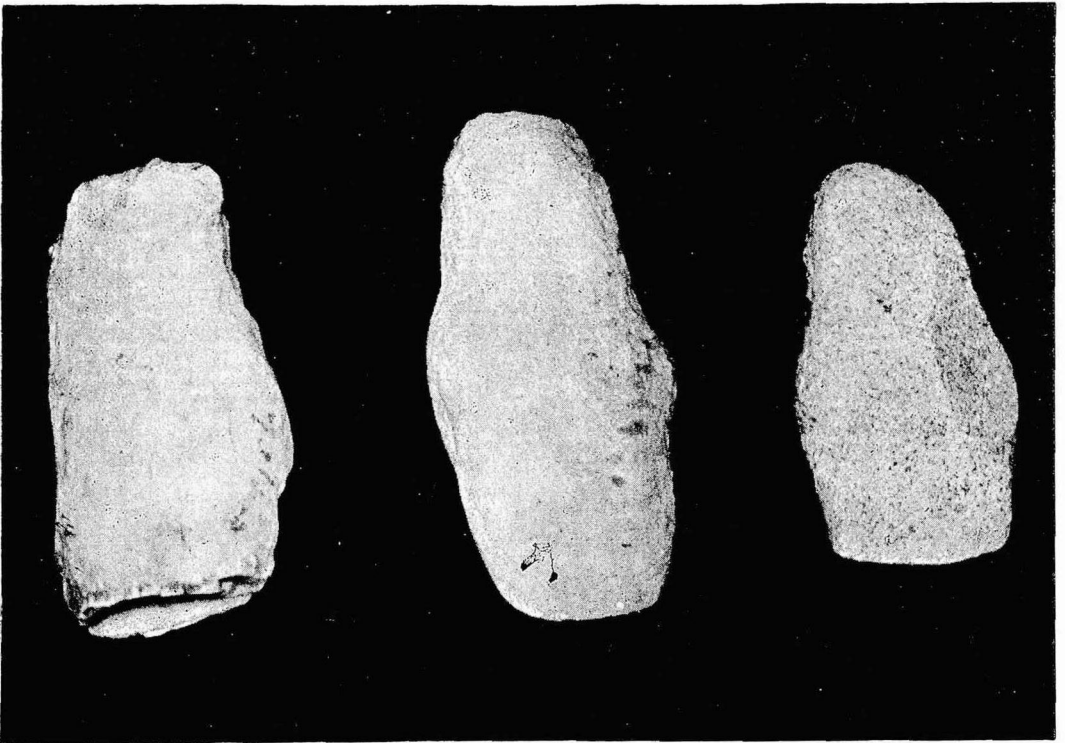


圖 21. 有 肩 石 斧



圖 22. 異形石器 1, 3...牛角形石器 2...半月形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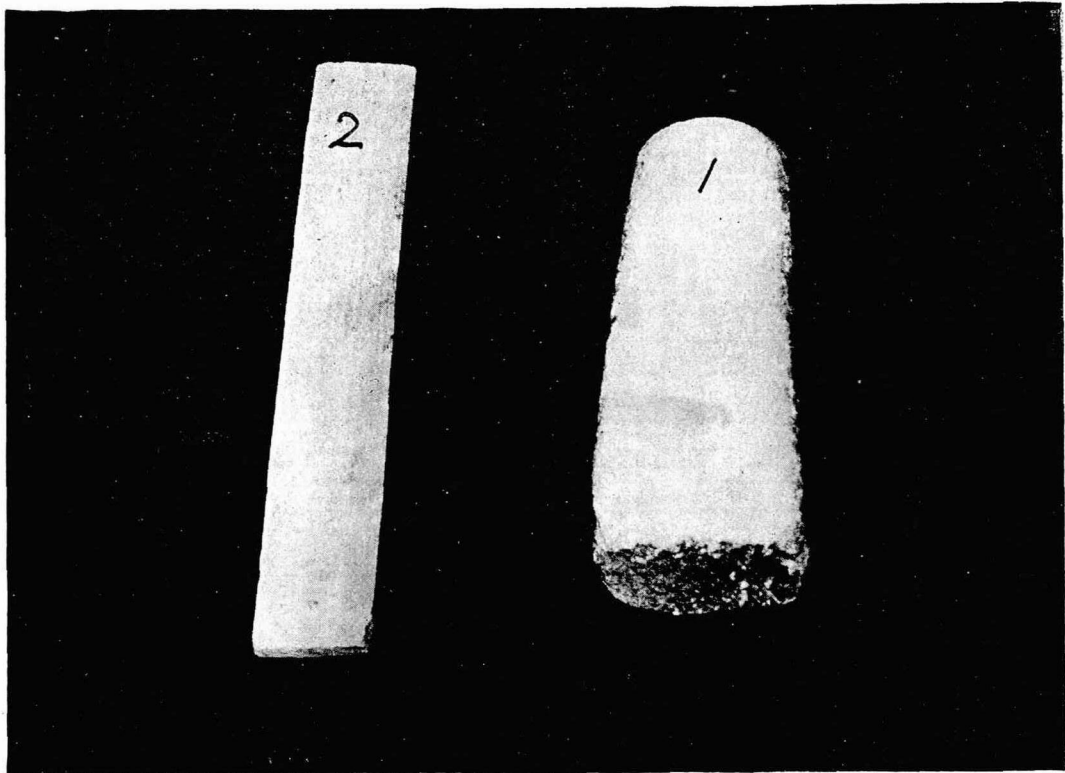


圖 23. 砥石 (1.....其1)
(2.....其2)

有肩石斧는 東南亞細亞를 비롯하여 中國華南地方과 太平洋諸島嶼地域^⑧으로 分布되는 것인 바 二次的으로 南滿洲와 韓半島^⑩에 分布되었는데 特別 韓國에 있어서는 南部地方에서 그 實例가 確認되었다. 이 有肩石斧도 農耕文化의 生産用具로 使用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基本形態는 蛤刃石斧로서 肩部의 形成은 着柄의 便宜를 얻고자 하는 變形이라 할 것이다.

B 異形石器

① 牛角形石器(圖 19의 ⑦⑨·22의 ①③)

良田洞石器 中에서 前述한 磨製有肩石斧와 더불어 이 牛角形石器가 가장 많은 數에 達한다. 이들 牛角形石器는 異形石器의 하나로 그 小形의 것은 全長 一七cm 정도 그 大形의 것은 全長 一四cm 정도에 達한다. 이 石器는 모두 打製로 되었는데 그 形態는 牛角形으로 보겠거니와 또 는 半月形으로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曲玉形이라고도 하겠다. 아니면 버선 모양 같다고도 하겠다. 扁平한 中間位에서 그 一端은 홀쭉해지며 角形을 이루어 끝이 뾰족하고 그 他端은 漸次 퍼져서 버선바닥 모양으로 曲線을 이루고 있다. 石器의 用途는 아직까지 未詳하다. 筆者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確言하기 어려우나 그 뾰족한 곳은 찌르는데 또는 짓질는데 使用한 듯하고 扁平한 曲線部는 石斧의 役割을 한 듯하다. 곧 一舉兩得의 用途로 그 使用目的을 지닌 創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石器는 韓國에서는 高靈 良田洞 遺蹟에서만 發見되었을 뿐 他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石器이다. 이와 같은 牛角形石器가 日本九州의 肥後國下益城郡 當尾村 大野具塚^⑪에서 出土되었는 바 이는 曲玉形石器로 名稱하고 있다.

한편 曲形的인 角形으로 된 끝이 銳利하게 뾰족하고 소빨 모양으로若干 구부러지고 上部가 絶斷되었다. 이러한 遺品이 相當數에 達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獨自的인 石器인지 또는 前述한 牛角形石器의 破片인지 未詳하나 이 遺物이 또한 注目되는 바이다.

이들 牛角形石器도 前述한 石斧類와 같이 農耕生産器具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半月形石器(圖 19의 ⑧·22의 2)

半月形石器가 있으니 곧 全長 一四cm 最大幅 六·五cm 厚 三·五cm 인 바 大體로 D字形의 半月形을 하였다. 前者 牛角形 石器의 一種인지도 모르겠으나 前者는 內彎하였음에 對하여 後者는 大體로 半圓形式으로 되어 있어 前者 牛角形 石器와는 區別되어야 하겠다. 用途는 未詳하나 漢江 流域 遺蹟地에서 이와 같은 半月形石器나(慶熙大學博物館所藏品)가 出土되고 있음에 注目되는 바이다.

C, 砥石

① 砥石「其一」「其二」(圖 19의 ⑩·23의 ①②)

砥石「其一」은 砂岩質의 石材를 擇하였으니 대체로 梯形을 이루었는데 全長 一四cm 上邊幅 五·五cm 下邊幅 四·五cm 厚 四·三cm 로 곧 손에 들고 石器類를 갈아 쓰던 輕量砥石이다. 넓은 上下 兩面이 磨滅面인데 平坦하게 남았다. 그 使用度가 적은 것으로 推定된다. 砥石「其二」는 綠灰色의 砂岩質의 石材인 바 全長 一八cm 幅 三cm 厚 二cm 의 方形柱狀의 亦是 輕量砥石인 듯하다. 이를 拾得한 部落民이 面을 문질러서 그 當初 磨面의 狀態를 把握하기에 支障을 주고 있어 그 詳細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는 金屬器를 가는 砥石이거나 혹은 小形 石器를 水磨하는 砥石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들 砥石에 있어서 前者는 石器를 가는 砥石임에 틀림 없으나 後者는 그 磨面으로 보아 後代의 것으로 생각되나 良田洞 文化樣式으로 보아 良田洞 遺蹟 年代가 이미 金屬器使用期가 물러 있는 것인 바 砥石「其二」도 良田洞 當時의 遺品으로 推定해 봄직하다.

石斧·異形石器·砥石等 이들 石器類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農耕石器樣式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中國 仰韶農耕文化樣式인 磨製蛤刃石斧와 東南部 亞細亞와 太平洋 島嶼地帶의 農耕文化樣式인 磨製有肩石斧와 合流한 石器文化를 이루고 또한 牛角形石器와 같은 獨特한 石器를 使用하는 등 곧 良田洞 遺蹟은 農耕의 先進文化 樣相을 形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以上 記述한 土器와 石器를 使用하면서 良田洞 先史人들은 이곳에 農

耕社會를 構築하고 그 文化를 形成하였다. 이를 要約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土器는 靑銅器와 더불어 出土되는 土器類와 같은 無文土器인 바 器底를 平平한 平底 또는 底面을 약간 오목하게 들어 가게한 底臺로 處理하고 把手를 牛角形으로 接着시키며 口緣部를 付帶形式으로 造成하여 高坏形土器를 生産하는 등은 모두 當時 農耕文化遺蹟의 無文土器의 形態上的 特徵인 것이다.

石器에 있어서도 精磨된 蛤刃石斧와 有肩石斧는 粘板岩製 石斧이나 또는 靑銅器와 같이 伴出하는 石器樣式으로 亦是 앞에 말한 樣式系의 無文土器와 靑銅器와 並存하는 農耕文化遺蹟에서 出土하는 石器 形態를 갖추었으며 蛤刃石斧 같은 北쪽으로 부터 流入된 中國 仰韶農耕文化 石器系와 有肩石斧와 같은 西海岸과 南海岸에 分斧되고 있는 東南亞細亞 農耕文化 石器가 合流된 文化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良田洞의 土器·石器는 마치 琴湖江 流域 遺蹟의 土器·石器等과 酷似하다. 그리하여 良田洞 農耕文化는 琴湖江 流域의 農耕文化 遺蹟과 關係를 맺으며 곧 洛東江 流域의 特色을 보이고 있다. 한편 牛角形 石器를 使用하는 石器樣式에 注目되는 바 이는 日本九州 地方에서 出土된 所謂 曲玉形石器 또는 南方에서 볼 수 있는 所謂 靴形石斧 등에 連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良田洞의 農耕文化의 特殊性과 獨自性을 發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良田洞 農耕文化의 年代에 對하여는 斷定을 내리기 어렵다. 이곳에서 出土된 土器나 石器는 新石器時代를 벗어난 樣式을 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거나와 金屬 初期 遺蹟에서 흔히 出土되는 靑銅器나 또는 劍把頭飾이나 粘板岩磨製石斧 등도 出土된 事實이 없다. 그리하여 이곳 遺蹟의 年代 推定에는 難點이 있다. 그러나 良田洞 農耕文化의 土器·石器는 前述한 바와 같이 金屬器를 使用한 後의 遺蹟地에서 出土된 遺品과 같은 樣式이며 그것이 韓國 金屬 初期 文化와 系統을 같이 하며 日本 彌生時代의 土器·石器와도 共通된 樣式이라는 點에 注意되어야 하겠다. 곧 良田洞文化는 典型的인 農耕文化 樣式으로 絶對年代는 알 수 없으

나 金屬 初期에 들어선 文化的 性格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二、岩畫遺蹟(圖 1-14)

良田洞 土器와 石器의 散布地인 丘陵에서 南走하는 山줄기가 그치는 南端이며 高靈邑의 東南쪽으로 흐르는 伽川과 西南쪽으로 흐르는 伽川이 合水하는 會川이 감도는 北岸인 알터(卵岬)部落의 沙岩으로 된 岩壁에 岩畫가 彫刻되어 있었다.

岩畫는 向左로 數十丈 群岩絶壁이 繼續되고 또 向右로도 群岩絶壁이 繼續되는 가운데 알터(卵岬)部落 入口에 낮은 岩面이 選擇되어 이곳 岩面하고 매끈한 岩面에 그림이 彫刻되었다. 岩壁全體의 높이는 地上約 3m 橫幅은 6m에 이르며 그림이 彫刻된 岩面만은 그 높이가 약 1.5m이고 幅이 5m이다. 이 조그마한 岩面에 原始畫가 配置된 셈이라 하겠다.

이들 原始畫의 形態는 大略 「同心圓」、「十字形」、「假面(假稱)」 등으로 區別할 수 있다. 이들 그림의 構造와 그 配置 狀況을 略述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1)、同心圓(圖 2、3、4)

同心圓은 그 直徑이 約 18cm 乃至 20cm 인 즉 三重으로 된 同心圓인데 모두 四個에 達한다. 바위 中央部에 同心圓 한개가 뚜렷하게 彫刻되어 있고 이밖의 한개는 이 바위 頂上部 가까이 配置되었는데 岩面의 破損과 더불어 切半部가 缺失되었으며 또 한개는 向左 中間位에 配置되었고 또 한개는 向右 下部에 配置되었다.

(2)、十字形(圖 2、3、4)

岩面 中央部의 同心圓의 向右若干 아래에 磨滅로 明確하지 않으나 十字形이 彫刻되고 그 둘레를 橫一五cm 縱一二cm의 四角形으로 線이 그려져 있는 것 같으나 未詳하다. 그 表現 方法으로 보아 이는 十字形을 表現하는 意匠임에 틀림 없는 것 같다.

(3)、假面(假稱)(圖 2、3、4)

岩面 處處에 面相을 表現한 것과 같은 異形畫가 配置되었다. 이는 總一七個이며 작은 것은 縱二〇cm에 橫二二cm이고 큰 것은 縱四〇cm

에 横三〇cm에 達하기도 한다. 그 形態는 모두 같은 形式인데 위로 髮毛와 같이 鬚(毛)을 나타내고 左右로는 髮毛와 같이 鬚(毛)을 그렸으며 그리고 耳、目、口、鼻와 같이 구멍(毛)을 鬚과 左右로 鬚어 올라 간 鬚(兩角)을 表現하기도 하여 或은 獸面形과도 같고 或은 人間の 顔面形과도 같은데 여기는 「假面」이라고 假稱하는 바다.

以上 記述한 同心圓·十字形·假面 등이 岩面에 配置 彫刻되어 이들 三種의 象形記號가 岩畫의 主體가 되고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그리고 同心圓을 中心으로 數個의 「假面」을 둘러싼 三個의 小群으로 區分되어 있다. 곧 向右 小群과 中央 小群과 向左 小群의 三個 小群이 統合되어 하나의 大群을 이루는 岩畫로 形成되었다. 이 配置의 小群은 部族社會 人的 組織體로도 推測되어 이곳 部族人의 社會構造 樣相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들 岩畫의 모습 등으로 보아 考察되는 바가 있다. 첫째 「同心圓」은 곧 太陽을 象徵한 것인 바 太陽神을 表現한 것으로 推定된다. 둘째 「十字形」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지 未詳하나 十字를 가운데 두고 周圍를 둘러싸 田字形을 髣髴케 하였으니 이는 部族社會의 生活圈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假面」은 모두 人間の 面相인 듯하여 이는 人物像의 形式화된 「護符」로 推定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 同心圓、十字形、假面 등의 岩畫는 모두 「半記號」、「半象形」의 固有信仰으로서의 呪術的인 圖畫라 하겠다.

이와 같은 岩畫는 時代가 흐르며 發展하였으니 또한 그 系譜를 따질 수 있다.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도 同心圓이 보이니 곧 高句麗 古墳壁畫에 同心圓이 나타나고 있는 바 內里第一號古墳의 太陽을 表象한 日象 또는 太陰을 表現한 月象 등과 그리고 南卒 持送部와 北卒 持送部에는 同心圓을 그려 놓고 있어 이는 良田洞 同心圓의 系統을 繼承한 것이라고 推測되는 것이라 하겠다. 또 「彥陽書石臺」는 岩壁 上段에 同心圓、菱形、三角形 其他 등 幾何學紋으로 된 多樣한 岩畫가 彫刻되어 있는데 이들 同心圓을 中心으로 한 各樣岩畫는 呪術的인 뜻을 지닌 것으로 良田洞 岩畫의 系譜에 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日本 九州地方의 裝飾古墳에서 볼 수 있는 壁畫도 注目되는 바다. 이들 裝飾古墳에는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同心圓을 中心으로 各種 幾何學紋이 보이니 그 例로 直弧文 A形과 B形·車輪形文(熊本縣 不知町 國越古墳)·三重同心圓文·靱文(熊本市 小島千金甲 第一古墳)·連續三角形文(熊本縣 玉名市 大坊古墳)·菱形連續文·圓文·同心圓文(熊本縣 山鹿市 チブサン古墳)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裝飾古墳의 幾何學紋樣과 特定の 器物 등은 모두 除魔의 呪術的인 뜻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福岡縣 浮羽郡 古井町 大學富永 珍敷塚 古墳에서 보이는 同心圓文(船)·靱 等を 通하여 볼 때 同心圓은 太陽神이요(船)는 太陽船으로 解釋되고 있고 三個의 靱은 三人의 被葬者의 象徵이라 하니 이것도 宗教로서의 呪術的인 面이 濃厚하다. 이들 裝飾古墳의 壁畫樣相은 日本學界에서는 지금까지 그 起源을 大陸系의 高句麗 古墳壁畫에 두고 있고 最近에 와서는 裝飾古墳의 壁畫 內容이 그 起源을 大陸 또는 韓半島에 關聯시킬 何等의 理由가 없다고 하여 새로운 起源說을 主張하고 있다. 여기에 考察되는 바로는 九州地方의 裝飾古墳의 內容은 高句麗古墳壁畫의 影響을 입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良田洞 岩畫」나 「彥陽書石臺의 岩畫」內容과 相通되는 것으로 그 源流는 韓國岩畫에 들어야 할 것으로 「良田洞 岩畫」·「彥陽書石臺 岩畫」·「日本 裝飾古墳壁畫」는 하나의 原始繪畫의 系譜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三、良田洞 先史文化的 性格

—— 丘陵石器遺蹟과 卵峴岩畫遺蹟과의 關係 ——

良田洞 丘陵 石器遺蹟과 良田洞 卵峴岩畫遺蹟과는 相互關聯이 있고 그것들이 同一年代이며 또한 岩畫가 바로 同一先史人들의 所作이라고 斷定할 만한 根據가 稀薄하다고 或者는 말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研究結果에 依한 良田洞 文化的 性格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이곳 石器遺蹟과 岩畫遺蹟을 關係지어 볼 수 있겠다.

良田洞 石器遺蹟은 前項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丘陵地帶의 自然環境條件으로 보아 이 丘陵地帶는 可히 先史人의 居住가 될 만한 곳이다. 西

北쪽이 막히고 東쪽으로는(四、五 km 밖) 洛東江이 흐르고 西쪽과 南쪽으로는 伽川과 椰川이 흐르다가 會川에 合流하여 洛東江 支流를 形成하였으니 곧 이 丘陵의 東·西·南 三面으로는 그 展望이 좋다. 이 丘陵에 定着하여 農耕을 生産手段으로 하고 하나의 良田洞文化를 形成하였던 것이다. 發掘調査가 없어 住居址를 發見하지 못하여 이곳 遺蹟狀況을 詳細히 알 수는 없지만 先史人들이 이 丘陵에 住居하며 ① 赤褐色 無文土器 ② 磨製蛤刃石斧 ③ 有肩石斧 등을 使用하면서 典型的인 先史農耕文化를 形成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特히 牛角形石器 半月形石器 等도 農耕文化에 屬하는 石器樣式인 바 이들 石器는 이곳 先史農耕人들이 製作 使用한 것이다. 이와 같이 優秀한 石器를 만드는데 그들의 卓越한 技能을 보이고 있다. 이들 土器와 石器는 金屬器 初期文化樣相의 것으로 이같이 高度한 文化를 가지고 있는 터이라 그들은 優秀하고 流麗한 岩畫를 彫刻할 수 있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岩畫 自體의 描寫 技能으로 보아 그 象形的인 表現手法은 相當히 高古한 것으로 先史時代로 올라 갈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는 이곳 良田洞 農耕人들의 手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岩畫의 位置로 보아 良田洞 先史人들이 住居하던 丘陵이 끝나는 南端 古代人들은 南方을 光明界로 생각했던 例를 볼 수 있다²⁶⁾이며 맑은 河川이 감돌아 흐르는 깨끗한 河岸이라는 特色(先史時代 岩畫遺蹟은 大部分 맑은 河川이 흐르는 곳에 位置하고 있다)當時의 先史人들이 岩畫를 그릴만한 곳이라 하겠다.

이곳 良田洞 先史農耕人들은 맑은 물이 흐르는 河岸에 깨끗한 바위를 選擇하여 그 岩面에 同心圓·十字形·假面을 彫刻하여 이른바 이들 同心圓·十字形·假面 등은 모두 固有信仰으로서의 呪術的인 繪畫를 象徵的인 記號(繪畫)로 表現하여 이를 祭壇으로 삼고 그들은 이곳을 聖地로 여기며 太陽神 곧 天神에 祈禱하여 農耕에 따르는 所願 成就를 바랐고 或은 自己의 뜻을 神前(天神前)에 盟誓도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이곳 岩畫를 가장 崇尚하고 가장 神聖視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住居하던 先史人들은 太陽神(天神)을 崇拜하고 信仰하던 民族이었던

바이는 우리의 祖上이요 또 그 太陽神 信仰思想은 지금 까지도 우리의 民俗信仰 속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四、餘 說

本岩畫가 良田洞 先史農耕人의 所作으로 推定되고 또 太陽神을 信仰하던 祭壇이었으리라 하고 解釋될 때 이곳 岩畫가 있는 「알터(卵峴)」는 元來 「알터(卵基)」라는 뜻에서 이곳 岩畫와 이곳의 地名과도 不可分의 關聯이 있는 듯하다. 우리의 祖上은 天神信仰民族으로 그 起源說話인 「卵生說」과도 關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이곳 卵峴岩畫는 우리 祖上들이 太陽神을 崇拜하고 信仰하던 聖地였다는 점에서 이곳은 當時에 祭壇으로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例는 文字를 使用하던 歷史時代인 新羅에 이르러서도 있었다. 곧 蔚州郡 岩畫遺蹟이 當時 花郎들이 가장 神聖視하고 崇拜하던 岩畫로 이는 여기 良田洞 卵峴岩畫와 一脈相通하는 것이라 생각 된다.

良田洞 卵峴岩畫의 發見은 韓國에서 가장 오래 된 最古의 原始畫로서 新發見이며 우리 나라 繪畫史의 珍貴한 裝飾할 수 있는 것인 同時에 우리 民族思想史 또는 民俗史의 珍貴한 資料로서 意義가 있고 앞으로 잘 保存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岩畫가 앞으로 더 많이 發見되어 이 岩畫의 系譜가 밝혀지기 바라는 바이다.

註

- ① 一九七〇年 末에 東國大學 博物館調查團에 依하여 「蔚州書石臺」가 發見되어 그 學術調査가 進行되고 있다.
- ② 「赤林山」이라 함은 良田洞 뒷산을 말함이나 下麓에 寺址가 있고 「赤林寺 銘五片이 出土되었는 바 이 「赤林寺」라는 寺名에 依하여 山名이 생긴 것 같다
- ③ 石器遺跡地인 「赤林山」 東麓인 良田洞에는 支石墓가 分布되어 있다. 良田洞 本部落에 三基가 있고 건너편 들판에 一基가 現存하는데 모두 南方式 支石墓이다. 曹龍賢氏의 말에 依하면 從前에는 支石墓數가 더 많았으나 耕作關係로 破壞되었으며 磨製石劍 等이 出土된 事實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支石墓遺跡과 丘陵上의 石器遺跡과의 關係여부는 아직 斷言하기 어려우나

그 문화様相은 別個인 것 같다.

④ 尹容鎮：「高靈 聞津面 良田洞 先史遺跡에 對하여」考古美術 第七卷 第一號 PP 七一—(一九六六)

⑤ 金廷鶴：「廣州 可樂里 住居址 發掘報告」古文化 第二輯 PP 一一—二五 (一九六三)

⑥ 金用珩：「美松里遺跡의 考古學的 位置」朝鮮學報 第二六輯 PP 七一—二四 (一九六三)

⑦ 尹容鎮：「琴湖江 流域의 先史遺跡研究 (1)」古文化 第五·六合輯, PP 一—三〇(一九六九)

⑧ 東九州地方에서 良田洞出土 高坏形 土器系의 類例가 出土되고(森貞次郎 彌生文化의 發展と地域性—九州—) 日本의 考古學 II 熱田貝塚出土 高台土器가 더욱 酷似하며(情野謙次著 日本貝塚의 研究 參照) 이밖에 高坏形 土器가 彌生式土器의 定形으로서 使用된 것으로 생각된다(日本文化史大系—工藝— 彌生式土器—) PP 三五—三五

⑨ ① 拙稿：「瑞山 大山里出土 石鏃」古文化 第二輯 PP 三六—四一(一九六三)
② 拙稿：「瑞山 仁旨面 先史遺跡調查報告」古文化 第三輯 PP 四四—五一 (一九六四)

⑩ ① 小江慶雄 著 水中考古學研究 「琵琶湖의 湖底遺跡—遺物類について(第一 六回)—」 PP 六六—(七二六七)

② 福岡縣 三澤 所在遺跡 豫備調査概要 「A·B·C·D·E地區(西谷正 氏記)條(福岡縣 教育委員會刊) PP 一一—二(一九七二)

⑪ 日本은 貝塚에서 彌生時代의 蛤刃形石斧가 出土되고 있으나 龜山貝塚·西谷貝塚·三宮貝塚·大谷地貝塚 其他 等의 出土類例를 볼 수 있다(情野謙次 著 日本 貝塚研究 參照)

⑫ 森貞次郎：「生産用具と農耕文化의 地域性」日本の考古學 PP 六〇—六七 (一九六七)

⑬ 岡本明郎：「勞働用具—日本の考古學 PP 一一—二二(一九六七)

⑭ 金元龍：「慶州地方의 一石斧」考古美術 第二卷 第四號(一九六一)

⑮ 拙稿：「有段石斧의 二例」考古美術 第九卷 第一〇號(一九六八)

⑯ 尹容鎮：「琴湖江 流域의 先史遺跡研究 (1)」古文化 第五·六合輯(一九六九)

⑰ 松本信廣：「肩有石斧의 諸問題」史學 第一八卷 第二號(一九三〇)

⑱ 金元龍：「靈岩郡 日松里의 新石器文化」震檀學報 第二四號 PP 一三九—一四四(一九六三)

— PP 一七一—(一九六九)

⑲ 「同心圓」은 西歐地域의 岩畫에서 볼 수 있는 螺旋紋(貞末堯司「北部安德스における考古學上の諸問題」考古學雜誌 第五四卷 第一號 PP 三三—三八) 日本의 繩文式土器에서 볼 수 있는 螺旋紋(齋勝忠「原始美術としての繪畫と文様—渦卷文—」原色日本の美術 PP 一九〇—一九一) 等과 後代의 巴紋等과 相通되는 것으로 같아 태양을 象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⑳ 世界史大系—先史時代「西ヨーロッパ 新石器文化의 性格—宗教遺物である石製護符—」PP 三八—三八三(一九五九)

㉑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內里古墳群と第一號古墳 壁畫」PP 一三—圖版二四·二五(一九六一)

㉒ ① 小林行雄 編著「裝飾古墳」參照(一九六四)
② 齋勝忠 編著「古墳壁畫 日本原始美術」5(一九六五)

③ 乙益重隆「裝飾古墳」考古學講座 5 原史文化下 PP 二三七—二四九(一九七〇)

㉓ ① 原始日本の美術—原始美術 「九一、珍敷塚古墳 同解説」PP 一〇六·一〇七·一五五(一九七〇)

② 齋勝忠「原始美術としての繪畫と文様」同書 PP 一八七—二〇〇(一九七〇)

㉔ 「彥陽書石臺」에서 도 珍敷塚古墳의 船舶圖와 같은 船舶圖가 보이고 新羅와 伽倻地域의 古墳에서 는 舟形土器가 出土되고 있으나 이는 모두 太陽船으로 보아야 하겠고 특히 伽倻地域 古墳出土 舟形土器와 車形土器는 그 禮葬者를 보내는 太陽船(天馬車)·太陽車(天馬車)로 推定된다. (拙稿「伽倻地域土器의 研究」新羅伽倻文化 第二輯 PP 八五—一七五) 이와 같은 太陽信仰思想은 日本에 傳授된 것으로 그 思想이 韓國에 가까운 九州地方과 그 連絡이 잦았던 近畿地方에서 더욱 濃厚함을 알 수 있다.

㉕ 乙益重隆：「裝飾古墳의 諸問題」考古學講座 5 原史文化下 PP 二五〇—二五一 (一九七〇)

㉖ 拙稿：「北四洞 古墳發掘調査略記」新羅伽倻文化 第二輯 PP 二〇九—二二三 (一九七〇)

㉗ 「高靈 良田洞岩畫가 江岸이요 彥陽書石臺 岩畫가 川邊이요 또 近日에 發見된 盤龜臺岩畫가 河岸이요 西歐의 경우도 그러하니 아마 琴江 流域 또는 나뉘어 流域의 岩畫도 亦是 河岸이요(貞末堯司「北部安德스における考古學上の諸問題」考古學雜誌 第五四卷 第一號 PP 二五—四四) 또 하바로프스키(Khataiyouski) 地方의 岩畫도 川邊이다. (世界史大系—先史時代「黑龍江 地方」PP 二九四—二九五)